

차량용 요소의 재고량 및 도입예정량 고려시 국내 수급에 문제 없을 전망

〈보도 주요내용〉

9.25(월) 아시아투데이 「“지방가서 사왔어요”... 요소수 대란 또?»에서는 지난 9월 7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중단한 이후 곳곳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 및 도입 예정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차량용 요소수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에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로 약 2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어 향후 도입이 예정된 요소 물량도 17,700톤으로 약 90일분에 이릅니다. 이는 내년 2월말까지 국내 수요물량에 해당됩니다.

또한 요소 관련 최초 보도(9.7) 이후, 중국 차량용 요소 수출기업과 총 11건(10,900톤)의 신규 수입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통관 등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원활한 상황입니다.

* (예) 9.8일 中 기업과 수입계약이 체결된 차량용 요소 3,000톤이 9.24일 한국 도착

산업부는 요소 수입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업, KOTRA 등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수 유통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 유통 업체와도 소통 중입니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공급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팀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725)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044-203-4935)